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 과목 해설지

[정답]

1	2	3	4	5	6	7	8	9	10
㉔	㉑	㉓	㉕	㉒	㉑	㉖	㉓	㉒	㉖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㉓	㉖	㉕	㉓	㉑	㉖	㉒	㉑	㉓	㉕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㉕	㉒	㉓	㉖	㉕	㉓	㉖	㉕	㉑	㉒

[해설]

1. [정 답] ㉒

[해 설]

신유형으로서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한자를 찾는 문항이다. 단원 김홍도의 ‘牛耕(우경)’이라는 그림으로서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이다.

2. [정 답] ㉑

[해 설]

두 성어의 공통 한자를 찾아서 그 제자원리를 적용하는 문항으로서, 여기서 공통 한자 ‘馬(마)’는 상형자이다. 평가요소가 복수로 되어 있다.

- ▶ 指鹿爲馬(지록위마), 馬耳東風(마이동풍)
- ▶ 上(상)-지사자, 名(명)-회의자, 男(남)-회의자, 淸(청)-형성자

3. [정 답] ㉓

[해 설]

제시된 한자는 ‘鳥(조)’가 부수이다.

- ▶ 鳥(조) 새, 鳳(봉) 봉새, 鷄(계) 닭

4. [정 답] ㉕

[해 설]

부수와 결합했을 때 독음이 변하지 않는 것 찾기

寸(촌)-村(촌), 公(공)-松(송), 主(주)-柱(주), 幾(기)-機(기)

5. [정 답] ②

[해 설]

제시한 부수와 총획수, 독음에 합당한 한자 찾기

胃(肉,9,위), 背(肉,9,배), 削(刀,9,삭), 朔(月,10,삭), 期(月,12,기)

6. [정 답] ①

[해 설]

한자어를 만들 수 있는 공통의 한자 찾기

生計(생계), 生活(생활), 生成(생성), 生存(생존)

7. [정 답] ⑤

[해 설]

十二支(십이지) 동물 찾기

九牛一毛(구우일모) : 牛-丑(축)

羊頭狗肉(양두구육) : 羊-未(미), 狗-戌(술)

守株待兔(수주대토) : 兔-卯(묘)

畫蛇添足(화사첨족) : 蛇-巳(사)

緣木求魚(연목구어) :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다

8. [정 답] ③

[해 설]

제시한 한자카드를 활용하여 그에 알맞은 뜻 찾기

結草報恩(결초보은) :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9. [정 답] ②

[해 설]

제시한 삽화의 내용에 알맞은 성어 찾기

百年佳約(백년가약) : 부부가 되어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언약

送舊迎新(송구영신) :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類類相從(유유상종) :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고 따름

燈火可親(등화가친) : 등불을 가까이할 만하다는 뜻으로, 서늘한 가을 밤은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좋음을 이르는 말

種豆得豆(종두득두) : 콩 심은데 콩 난다. 뿌린 데로 거둔다.

10. [정 답] ⑤

[해 설]

나이를 가리키는 말

古稀(고희)-70세, 不惑(불혹)-40세, 志學(지학)-15세, 耳順(이순)-60세, 而立(이립)-30세

11. [정 답] ③

[해 설]

蓬生麻中이면 不扶自直하고, 白沙在尼하면 與之皆黑이니라.(史記) : (꾸불꾸불한)쭉도 (곧은)삼 가운데에서 자라면 돕지 않아도 저절로 곧아지고, 흰 모래도 진흙 가운데 있으면 그와 더불어 모두 검어진다.(사기)

사람은 사귀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다.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맹자의 교육적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고 한다. - 三遷之教(삼천지교)

12. [정 답] ⑤

[해 설]

대구를 활용하여 빠진 글자를 유추하기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서로 사랑한다면 잘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한다면 어지러워질(亂(난)) 것이다.

13. [정 답] ④

[해 설]

문맥상 공통으로 들어 갈 한자어 찾기

* 벗에게 불신을 받으면, 윗사람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한다.

* 나는 하루에 세 번 내 자신을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피함에 충실하지 않았는가? 벗과 더불어 사귀는데 미답지 않았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

14. [정 답] ③

[해 설]

한역속담의 속 뜻 알기

- ① 突不燃, 不生煙. - 굴뚝에 불때지 않으면 연기가 나지 않는다
- ② 難上之木, 勿仰. - 오르기 어려운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 ③ 陰地轉, 陽地變. - 음지가 변하여 양지가 된다. -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
- ④ 積功之塔, 豈毀乎. - 공든 탑이 어찌 무너지겠는가
- ⑤ 三歲之習, 至于八十. - 세 살 버릇이 여든 까지 간다

15. [정 답] ①

[해 설]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

* 실행은 반드시 남보다 먼저 하고, 말은 반드시 남보다 뒤에 하라

<16~17> 해석

고려 공민왕 때에 어떤 백성의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동생이 황금 두 덩이를 얻어, 그 한 덩이를 형에게 주었다. 공암진에 이르러 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할 때 동생이 갑자기 강물에 황금을 던져 버리니, 형이 괴이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형을 사랑함(사랑하는 마음)이 도탑더니, 지금 황금을 나누고 나니 갑자기 형님을 꺼려하는 마음이 싹텔다. 이것은 바로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니, 강물에 던져 잊어버리느니만 못하다. 형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진실로 옳도다.”라고 하고 (형)또한 강물에 금을 던졌다.

16. [정 답] ⑤

[해 설]

어구풀이

* 是(시) 1. 옳다 2. 이(지시대명사) 3. ~이다

17. [정 답] ②

[해 설]

문맥상 빠진 한자 유추하기

不若 : ~만 못하다 (=不如)

不若投諸江而忘之(불약투저강이망지) : 강물에 던져 잊어버리느니만 못하다

<18~20> 해석

호랑이는 온갖 짐승을 구해서 그것들을 먹었는데, 여우를 잡았다. 여우가 말했다.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천제께서 나로 하여금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 노릇하게 했으니, 지금 네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천제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를 위하여 앞서 가리니 너는 내 뒤를 따라서 온갖 짐승들이 나를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가를 보아라. 호랑이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드디어 그와 더불어 가게 되었는데, 짐승들이 그들을 보고 모두 달아났다.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여 달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18. [정 답] ①

[해 설]

문장형식 문제

天帝使我長百獸:천제께서 나로 하여금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 노릇하게 했다(사동형)

- ① 秋月色, 令人悲 : 가을 달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한다(사동)
- ② 養子息, 知親力 : 자식을 길러야 아버지의 노력을 안다
- ③ 己所不欲, 勿施於人 :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 ④ 王侯將相, 寧有種乎 :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있겠는가?
- ⑤ 國之語音, 異乎中國 :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19. [정 답] ③

[해 설]

나(我)를(以) 믿지(信) 못하겠다고(不) 여긴다면(爲)

20. [정 답] ④

[해 설]

글의 교훈 알기

이 글에서 유래된 狐假虎威(호가호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다’이다.

<21~22> 해석

지금 농사짓는 자로 하여금 밭을 얻게 하고, 농사짓지 않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하려면, 여전법을 시행해야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중략) 노력을 많이 한 자는 얻는 곡식이 많고, 노력을 적게 한 자는 얻는 곡식이 적은 법이니, 어찌 노력을 다하지 않고서 그 수확이 많기를 기대하겠는가?

21. [정 답] ④

[해 설]

글에 나타난 ‘吾志’(나의 뜻)은 바로 ‘耕者有田’(경자유전)으로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22. [정 답] ②

[해 설]

* 寡(과) 적다 = 少(소)

<23~24> 해석

백성으로 말하면, 항산(땃땃이 살 수 있는 생업)이 없으면 때문에 항심(변하지 않는 땃땃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항심이 없어진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무절제함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죄에 빠짐에 이른 뒤에 따라서 이들을 형벌준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仁人이 (임금의)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23. [정 답] ③

[해 설]

* 恒心(항심) : 변함이 없는 땃땃한 마음

22. [정 답] ⑤

[해 설]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25~27> 해석

유리왕이 이미 6부를 정하고 가운데를 갈라 둘로 하여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의 여자들을 인솔하여 무리를 나누어 가을 7월 16일로부터 매일 일찍 대부의 뜰에 모여 베를 짜되 밤 열 시 경에야 끝내게 했다. 8월 15일에 이르러서 그 공적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진자가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자에게 사례했다. 이에 춤과 노래 온갖 놀이가 모두 행해지니, 이것을 가배라 이른다.

25. [정 답] ④

[해 설]

어구풀이

率(술) 거느리다, 績(적) 짜다(길쌈하다), 罷(과) 마치다, 謝(사) 사례하다

26. [정 답] ③

[해 설]

한자어의 짜임 : 毎日(매일) - 수식

日沒(일몰) : 해가 지다(주술)

修身(수신) : 몸을 닦다(술목)

商人(상인) : 장사하는 사람(수식)

道路(도로) : 길(유사 병렬)

強弱(강약) : 강한 것과 약한 것(대립 병렬)

27. [정 답] ⑤

[해 설]

글의 내용을 삽화로 연결하기

* 개울에서 빨래하는 내용은 없다

<28~30> 해석

봄비가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 되니 작은 빗소리 들린다.
눈 녹아 남쪽 시내 불어나니,
풀썩은 얼마나 돌아났을까

해는 산에 기대어 지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네.
천 리를 다 바라보고자,
다시 한 층 누각을 오르네.

28. [정 답] ④

[해 설]

시어 풀이

里(리) : 거리의 단위

29. [정 답] ①

[해 설]

시의 소재

꽃은 두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

30. [정 답] ②

[해 설]

한시 감상

두 시의 공통점은 형식상 5언절구이라는 것이다.